



'The Wise Virgins', James Tissot

“그러니 깨어 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저녁일지,
한밤중일지, 닭이 울 때일지, 새벽일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주인이 갑자기 돌아와 너희가
잠자는 것을 보는 일이 없게 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깨어 있어라.”
(마르 13,35-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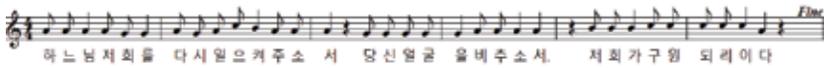
새 『로마 미사』 경본 신자들의 응답 바뀌는 구절

◎ (신자들의 응답) 또한 사제와 함께 → 또한 사제의 영광 함께
◎ (영성체 전) 제가 곧 나오리이다 → 제 영혼이 곧 나오리이다

[제1독서]..... 이사 63,16ㄹ-17.19ㄷㄹ; 64,2ㄴ-7

[화답송] 시편 80(79),2ㄱㄷㄹ과 3ㄴㄷ.15-16.18-19
(◎ 4)

◎ 하느님, 저희를 다시 일으켜 주소서. 당신 얼굴을 비추소서.
저희가 구원되리이다.



- 이스라엘의 목자시여, 귀를 기울이소서. 커룹들 위에 좌정하신 분,
광채와 함께 나타나소서. 당신 권능을 떨치시어, 저희를 도우러 오소서. ◎
- 만군의 하느님, 어서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살피시고,
이 포도나무를 찾아오소서. 당신 오른손이 심으신 나뭇가지들,
당신 위해 키우신 아들을 찾아오소서. ◎

- 당신 오른쪽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 위해 키우신 인간의
아들에게 손을 얹으소서. 저희는 당신을 떠나지 않으오리다.
저희를 살려 주소서. 당신 이름을 부르오리다. ◎

[제2독서]..... 1코린 1,3-9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 저희에게 당신 자애를 보여 주시고
당신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복음] 마르 13,33-37

- [성가 안내]**
- 입당성가: [91] 구세주 빨리오사
 - 봉헌성가: [210] 나의 생명 드리니
[211] 주여 나의 몸과 맘
 - 성체성가: [183] 구원을 위한 희생
[163] 사랑의 성사
 - 파견성가: [89] 주 하느님 자비로이

복음 집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 깨어 있어라.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33 “너희는 조심하고 깨어 지켜라. 그때가 언제 올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34 그것은 먼 길을 떠나는 사람의 경우와 같다. 그는 집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자에게 할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는 깨어 있으라고 분부한다.
 35 그러니 깨어 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저녁일지, 한밤중일지, 닭이 울 때일지, 새벽일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36 주인이 갑자기 돌아와 너희가 잠자는 것을 보는 일이 없게 하여라.
 37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깨어 있어라.”

Jesus said to his disciples: “Be watchful! Be alert! You do not know when the time will come. It is like a man traveling abroad. He leaves home and places his servants in charge, each with his own work, and orders the gatekeeper to be on the watch. Watch, therefore; you do not know when the Lord of the house is coming, whether in the evening, or at midnight, or at cockcrow, or in the morning. May he not come suddenly and find you sleeping. What I say to you, I say to all: ‘Watch!’”

묵상

우리는 대림 시기를 지내면서 그리스도인의 종말론적이고 완성된 삶을 준비할 것을 다짐합니다. 우리는 성탄절에 오시는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이 세상 끝 날에 그분을 잘 맞이하도록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세주께서 강림하시기 전에 방황했던 유다 백성의 삶은, 우리가 죄를 지어 헤매는 상황에 비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진정한 평화와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작품이지만 진흙과 같은 존재이므로 구세주의 강생을 더욱 간절히 기다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영적 자세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고 구원하시려고 늘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일어나 그분께 나아가길 희망을 갖게 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 모두에게 저마다 해야 할 일을 맡기신 다음, 기다리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나태하게 살면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미혹의 줄음에 빠져서 주님을 제때에 맞이하지 못하게 하는 악의 세력들이 우리 주변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숨어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는,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탄생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문지방 앞에, 우리가 사는 세상과 역사 속에 오시어 계십니다. 그분을 알아볼 수 있는 차림새는 자신의 죄와 미약함을 인정하는 겸손입니다.

(류한영 베드로 신부)

12월 8일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 원죄 없이 잉태되셨다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는 순간부터 죄에 물들지 않은 특전을 가리킨다. 교회는 초기부터 마리아 기도 안에 예수님의 어머니에 관한 교회의 신앙 본질을 표현하였다(431년의 에페소 공의회). 그러나 그 말에 들어 있는 은총의 불가사의를 들춰내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3세기의 성 이레네오는 마리아를 새 하와라고 부름으로써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원죄 없는 잉태를 예시하였다. 8세기에는 동방 교회에 이 칭호를 공경하는 축일이 있었다. 11세기에는 서방 교회도 이 칭호를 공경하기 시작하여 영국에서 축일을 지냈다. 두 세기 후에는 스코틀랜드에서 프란치스코회의 요한 둔스 스코투스가 복되신 동정 마리아는 다른 모든 피조물처럼 원죄를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미리 구속됨으로써 잉태의 순간에 원죄에서 자유롭게 되었다는 명확한 구분을 세웠다.



도메니코 페티,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 마리아

이 축일은 14세기에는 보편 교회의 달력에 삽입되었고 1708년에는 의무 축일이 되었다. 1854년 비오 9세는 이 특전을 신앙 교의로 규정하고 오늘날 전례에 나오는 말을 사용하였다.

동정 마리아께서 원죄 없이 잉태되셨다는 것은 마리아께서 단순히 악에서 보존되었다는 것만을 뜻하지 않는다. 그것은 마리아께 은총이 충만하다는 것을 뜻하며 성모 승천 대축일과 마찬가지로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 하느님의 어머니시라는 사실에 근거한다. 마리아의 승천과 원죄 없으신 잉태에서 복되신 동정 마리아는 때나 주름이나 어떠한 흠도 없는 교회의 표상을 예표한다(에페 5,27). 우리나라에서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은 의무 축일이며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는 한국 교회의 수호자이다. 전례 거행은 12월 8일(대축일)이며 주제는 하느님 앞에 순수한 삶이다. (가톨릭 전례 사전)

대림시기 깨어 기다림 · 희망 · 회개

전례력으로 새해가 시작되는 대림 제1주일이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 대축일을 앞두고 대림 시기로 한 해의 전례 주기를 시작하는데, 그 기간은 4주이다. 대림시기의 전례적 특징은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시기이다.



당신께
바라는 이들은
아무도 수치를 당하지
않으나 까닭 없이 배신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1-3절)

또한 그리스도 안에 오신 하느님은 인간에게 끊임없는 회개를 요청하시기에, 특히 세례자 요한의 선포를 통해서 본 대림시기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곧 오실 주님을 맞을 수 있도록 회개하라는 초대입니다.

기다림과 회개

기다림은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에게 당신의 신실함을 드러내는 약속의 하느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대림 시기 동안 교회는 약속된 메시아를 기다리는 히브리인들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차원에서, 그 약속의 결정적 구현인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다. 그 결과 대림 시기에는 ‘희망의 하느님’ (로마 15,13)을 기념하며 기쁨에 찬 희망을 체험한다(로마 8,24-25 참조). 대림 첫 주부터 부르는 입당송의 시편 25가 그런 의미를 잘 드러내고 있다.

“주님, 당신께 제 영혼을 들어 올립니다. 저의 하느님 당신께 의지하니 제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제 원수들이 저를 두고 기뻐 날뛰지 못하게 하소서.

대림 전례를 드리는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기쁨 중에 항상 깨어 기다림, 희망, 회개라는 본질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전례에 참여해야 한다.

대림 시기의 구분

☆ 첫 번째 시기 (대림 제1주일-12월 16일)

이 시기에는 종말에 대한 기다림을 뚜렷이 드러내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도래를 기다리도록 신자들의 마음을 준비시킨다.

☆ 두 번째 시기 (12월 17일-12월 24일)

이 시기는 주님의 탄생 축제에 특별히 강조점을 두고 있다. 첫 번째 시기에는 독서에서 우선적으로 이사야 예언자와 그 다음 세례자 요한의 모습이 기억되는 반면, 두 번째 시기에는 그리스도 탄생 전의 신약 사건들이 기억된다.

대림 시기의 전례

제1주일의 주제는 주님을 향한 기다림으로 예수님께서 “깨어 있어라”라고 말씀하신다. 제2, 3주일의 복음은 세례자 요한에 관한 말씀으로 ‘회개’를 강조하며, 제4주일은 요셉에게 한 예고(가해), 마리아에게 한 예고(나해), 마리아의 엘리사벳 방문(다해)에 관한 복음을 다룬다. 그리고 사도들의 편지는 예언자들의 예언이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완성되었는가를 증언한다.

대림시기와 마리아, 세례자 요한, 이사야 예언자

대림 시기 전례문에서는 특히 마리아, 세례자 요한, 이사야 예언자가 부각되고 있다. 이 시기에 마리아를 부각시키는 이유는 구원의 신비와 마리아와의 관계, 그에 대한 마리아의 협조에 대해 강조하는 전례 시기이기 때문이다. 세례자 요한의 경우는 그의 임무가 메시아의 전령으로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이스라엘에게 ‘구원받는 깨우침’(루카 1,77-78 참조)을 제공하며, 이미 그리스도께서 당신 백성 가운데 계심을 알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교회는 오래된 전통에 따라 이 시기에 이사야 예언서를 읽는다. 이사야 예언서는 아주 어렵고도 극한 상황에 처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따뜻한 위로와 큰 희망을 보여 주기 때문이다. (정의철 신부의 전례 해설)



바오로말 콘텐츠

Jr. High Thanksgiving Potluck & Activities



On November 18, students of the 6th-8th grades and their families gathered at the parish hall for the annual Junior High Thanksgiving Potluck Dinner. This year's event consisted of four parts; learning about how Catholic Charities of the Diocese of Arlington serve the less fortunate and those in most need, a **Meal Packaging Service Project**, Potluck Dinner & Games.

I want to thank all families who donated pasta, canned soup & canned tuna. Your generous donation made possible the Service Project, **"Feed a Family"**, a part of the St. Lucy Project of Catholic Charities of the Arlington Diocese. Participants were able to complete approximately **220 Roman Tuna Casserole Meal Packages** which will feed about **900 people!** These packages were delivered to the St. Lucy Project Warehouse in Manassas and will be distributed to needy households within the Diocese. This service project was especially meaningful since our Holy Father Pope Francis dedicated Nov. 19, 2017, as the first World Day of the Poor.

Special thanks to PTO Board members and Room Parents group for setting up, helping with meal packaging and preparing delectable foods. Very special thanks goes to Fr. Bang for his strong support and Ms. Jessica Seo for leading the games.

→ **Yunchong Boyle**, CCD Asst. Principal

CYO Thanksgiving Potluck



Thanksgiving, which is on November 23rd, is a national holiday that is celebrated to give thanks for the blessings one has received. For CYO students, it is a time of gathering with friends, family, and food. On Saturday, November 18th, the parents graciously prepared food for the CYO students for our annual CYO Pot luck. Even some CYO alumni came back from college to join us. We had delicious foods including turkey, ham, corn, yams, mash potatoes, cornbread, and pie. Father Bang gave blessings and led the meal prayer before everyone enjoyed their meal. After eating the food, we went to the gym to play some dodgeball, basketball, and hang out with CYO family members. It was a small event with a big impact as students came to enjoy food and company with friends, family, and God.



ANNOUNCEMENT

- 1. 1st day of First Holy Communion Class**
 - Dec. 6(Wed), 7:40pm, Hasang Building room #106
- 2. Parents Meeting for First Holy Communion Class**
 - Dec. 6(Wed), 8:00pm, Hasang Building room #110
- 3. CCD Christmas Pageant**
 - **When** : Dec. 10(Sun), 1:30pm -3:00pm, Parish Hall
- 4. CYO Winter Retreat**
 - **When** : Dec.15(Fri), 6pm - Dec. 17(Sun), 1pm
 - **Where** : Camp Highroad • **Cost** : \$40 / participant

Dec. 8 : Solemnity of the Immaculate Conception of the Blessed Virgin Mary (Holy Day of Obligation)

CYO-News

2017 BRIDGE BOWL



“ As a freshman coming into CYO, participating in an activity with upper classmen was the last thing I had in mind. I always thought they were scary and mean, but thinking about it, joining bridge bowl was one of the best decisions I've ever made in CYO! As a senior now, my friends and I can all agree that bridge bowl has brought all of us together - not just closer to each other, but also closer to god.

As we play against other fellowships and bond with them, it's also a fun competitive flag football game that everyone enjoys. Every practice after church was always a fun time. We got closer and closer together, no matter what grade we were in. The better we bonded, the better we played.

One of the reasons I love CYO is that everyone is so kind to each other, no matter what grade they were in. I don't know why I was so scared and nervous back then to be around the upperclassmen. They were always so sweet and approachable, never mean or intimidating. They always told me tips on how to play better and always cheered me on no matter how bad I sucked. So to all freshmen that are scared or intimidated by the upperclassmen, don't be! They'll always be there for you and help you out whenever you need it. Joining bridge bowl is one of the best ways to get closer with your peers and know them better. It's a great experience to play with other churches and see your other friends that are on the other teams!

Bridge bowl is so much fun and I am so glad I joined my freshman year. Last year, when our church won the championship, it was hands down one of the best feelings ever. All the hard work during practices in burning hot or freezing cold weather paid of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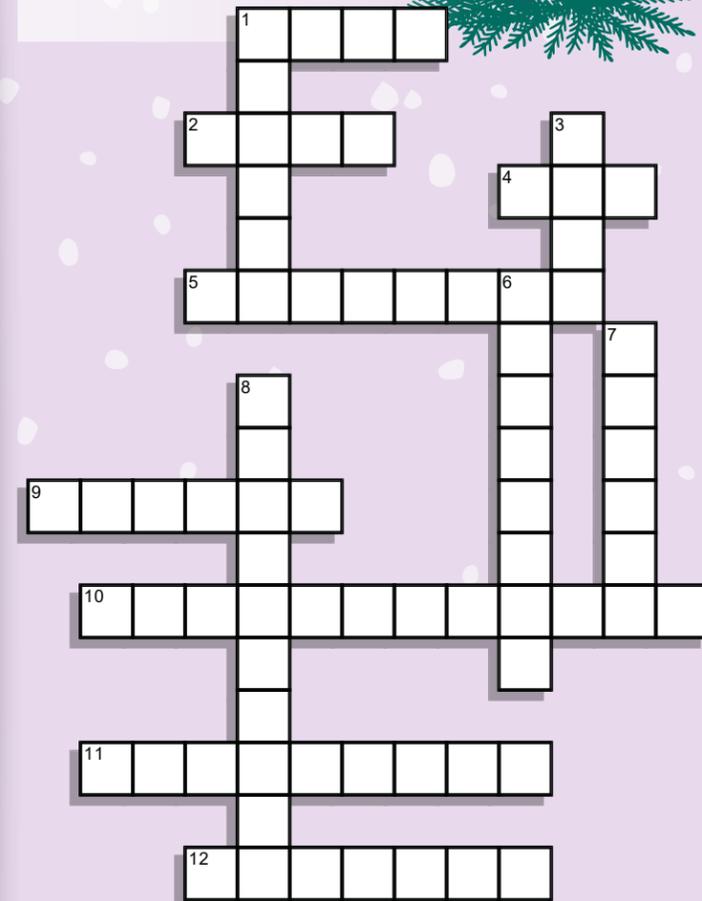
As last Saturday was my last year to play, I am so happy that my last 4 years of playing with my friends was always an exciting time. If you want to have a great time and get closer with everyone, then you should definitely join bridge bowl. You'll make some of your best friends and memories here.

→ **Ashley Park**, Senior

Advent Crossword

WORD LIST

Advent, Conception, Purple
Coming, Pray, Emmanuel, Joy
Christmas, AdventWreath, Pink
December, four, Oneweek



ACROSS

1. Third Advent candle lighted
2. During Advent we set aside time to _____ with our family
4. First Advent candle symbolizes
5. Month when Advent usually begins
9. What the word "advent" means
10. Popular evergreen family devotion used during Advent : 2 words
11. Church holiday right after Advent
12. Each candle of Advent wreath represent this: 2 words

DOWN

1. The color the Church uses during the season of Advent
3. Number of Sundays during the Advent Season
6. Advent Hymn: "O come, O Come _____"
7. Four weeks before Christmas; time of preparing for the birth of Christ
8. "The Immaculate _____" : Marian holiday that falls during the Advent Season

12월의 촛불기도

이해인 클라우디아 수녀

향기 나는 소나무를 엮어
동근 관을 만들고
4개의 촛를 준비하는 12월
사랑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 함께 촛불을 밝혀야지요?

그리운 벗님
해마다 12월 한 달은 4주 동안
4개의 촛불을 차례로 켜고
날마다 새롭게 기다림을 배우는
한 자루의 촛불이 되어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감사의 촛불을 켭니다
올 한 해 동안 받은 모든 은혜에 대해서
아직 이렇게 살아 있음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기뻐던 일, 슬펐던 일, 억울했던 일,
노여웠던 일들을
힘들었지만 모두 받아들이고
모두 견뎌왔음을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오히려
'유익한 체험' 으로
다시 알아듣게 됨을 감사드리면서
촛불 속에 환히 웃는 저를 봅니다
...

두 번째는 참회의 촛불을 켭니다
말로만 용서하고 마음으로
용서 못한 적이 많은 저의 옹졸함을
부끄러워합니다
말로만 기도하고 마음은 다른 곳을
헤매거나 일상의 삶 자체를
기도로 승화시키지 못한
저의 게으름과 불충실을 부끄러워합니다
늘상 섬김과 나눔의 삶을
부르짖으면서도
하찮은 일에서조차 고집을 꺾지 않으며
교만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했던 날들을
뉘우치고 뉘우치면서
촛불 속에 녹아 흐르는 저의 눈물을
봅니다

세 번째는 평화의 촛불을 켭니다
세계의 평화
나라의 평화
가정의 평화를 기원하면서 촛불을 켜면
이 세상 사람들이 가까운 촛불로
펼쳐집니다
사소한 일에서도 양보하는 법을 배우고
선과 온유함으로 사람을 대하는
평화의 길이 되겠다고 다짐하면서
촛불 속에 빛을 내는
저의 단단한 꿈을 봅니다

네 번째는 희망의 촛불을 켭니다
한 해가 왜 이리 빠를까?
한숨을 쉬다가
또 새로운 한 해가 오네
반가워하면서
다시 시작하는 설렘으로 희망의 노래를
힘찬 목소리로 부르렵니다

겸손히 불러야만 오는 희망
꾸준히 같고 닦아야만 선물이 되는
희망을
더 깊이 끌어안으며
촛불 속에 춤추는 저를 봅니다

사랑하는 벗님
성서를 읽으며 기도하고 싶을 때
좋은 책을 읽거나 글을 쓸 때
마음을 가다듬고 촛불을 켜세요
하느님과 이웃에게
깊이 감사하고 싶는데
적당한 말이 떠오르지 않을 때
촛불을 켜고 기도하세요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하고 힘들 때
촛불을 켜고 기도하세요

촛불 속으로 열리는 빛을 따라
변함없이 따스한 우정을 나누며
또 한 해를 보낸 길에서
또 한 해의 길을 달려갈 준비를
우리 함께 해야겠지요?



◆ 본당 송년 모임 안내 ◆

- 1 **소사에서 연말 콘서트**
 - "토닥토닥 수고했어요, 올해도"
 - 일시 : 12월 8일(금) 대축일 미사 후(친교실)
- 2 **K of C 송년파티**
 - 일시 : 12월 9일(토) 오후 6:30(친교실)
 - 연말 송년회에 올 한 해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 문의 : 허진 (703)376-1372
- 3 **꾸르실로 송년 울뜨레아**
 - 일시 : 12월 16일(토) 오후 6시(친교실)
 - 문의 : 광노덕 도미니코 (703)608-9664
- 4 **주일학교 학예회**
 - 주일학교 학예회에 학부모를 초대합니다.
 - 일시 : 12월 17일(일) 오후 1:30(친교실)
- 5 **성탄 제대꽃 봉헌 접수**
 - 성탄 제대에 꽃봉헌을 하실 분은 제대회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 황 줄리아 제대회장 (703)628-5262

산타가
되어 주세요



대림시기를 보내며 하느님의 사랑을
나누는 **Giving Tree**가 본당 입구에
세워졌습니다. 원주 까리따스 주최로
해마다 이어져온 사랑의 Giving
Tree에는 강원도 지역, 네팔,
파푸아 뉴기니, 필리핀 지역
아동들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카드가 달려 있습니다.

이들에게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을 전해 주세요.

아동 1명당 후원금은
\$20입니다.

1 원죄없이 잉태되신 동정마리아 대축일 미사

- 의무 대축일 미사에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일시: 12월 8일(금) 오후 7:30

2 전신자 대림 특강

- 일시: 12월 7일(목) 오후 7:30 - 9시
- 주제: 하느님께로 돌아감
"그는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루카 15,20)
- 강사: 이상진 아모스 신부

3 전신자 대림 피정

- 일시: 12월 14일(목) 오후 7:30 - 9시
- 주제: 내게 오시는 주님을 찾아 떠나는 여행 (준비물: 연필, 펜)
- 강사: 홍젬마 수녀
- 문의: 김우기 안드레아 (703)385-1305

4 대림 합동 고해 성사

- 일시: 12월 13일(수) 오후 3시-5시, 오후 7시- 9시

5 구역임원 교육

- 일시: 12월 3일(일) 오전 11:30(B-3,4)

6 성모회 임원회의

- 일시: 12월 3일(일) 오후 1시(B-1)

7 청소년 사도회

- 일시: 12월 3일(일) 오후 1시(B-3,4)

8 레지오 마리아에 연차 총친목회

- 일시: 12월 3일(일) 오후 6시, 친교실
- 대상: 행동단원 (회비: \$20)

9 주일학교 교사회의

- 일시: 12월 3일(일) 오후 1시

10 하상 성인학교 가을학기 종강식 및 발표/전시회

- 일시: 12월 3일(일) 오전 11:30(친교실, B-1,2)
- 가을학기 동안 수업한 과목별 작품 전시 및 발표회에 참석하시어 즐겁게 관람하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김명희 율리아나 교장 (703)217-2775

11 동전모으기 저금통 배부 (복지부 주관)

- 불우 이웃돕기 동전모으기 저금통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대림시기 동안 동전을 모아 주님공헌 대축일(1월 7일)에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의 행사

날짜	축일	행사 및 내용 (시간 및 장소)
12월 3일(일)	대림 제1주일	요한회 정기총회(오전 11:30, B-3), 구역임원 교육(오전 11:30, B-3,4), 하상 성인학교 종강 및 발표/전시회(오전 11:30, 친교실/B-1,2), 성모회(오후 1시, B-1), 청소년 사도회(오후 1시, B-3,4), 레지오 연총(오후 6시, 친교실)
4일(월)	대림 제1주간	아침미사(오전 6시, 성당)
5일(화)	대림 제1주간	성령기도회(오후 8시), 성서통독반(오후 8시, B-4), 레지오 마리아(오후 8시)
6일(수)	대림 제1주간	레지오 마리아(오전 9:30, 친교실), 성서통독반(오후 7:30, A-1), 첫 영성체반 개강(오후 8시, 하상관)
7일(목)	성 암브로시오 주교 학자 기념일	아침미사(오전 6시, 성당), 대림특강(오후 7:30, 성당)
8일(금)	원죄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마리아 대축일	대축일 미사 (오후 7:30, 성당), 소사역사 콘서트(오후 8시, 친교실)
9일(토)	대림 제1주간	아침미사(오전 7시, 성당), 레지오 마리아(오전 9:30, 친교실), 공동체 기도회(오후 8시), 파티마 세계사도직 33일 봉헌식(미사 후, 성당), K of C 연말파티(오후 6:30, 성당)
12월 10일(일)	대림 제2주일	단체장 회의(오전 11:30, B-1,2), 꼬미시움 월례회의(오후 1시, B-3,4), 복사단 모임(오후 12:40, B-1,2), 바오로 총회(오후 6시, 친교실)

12 건강관리 세미나 (교육부 주관)

- 일시: 12월 3일(일) 오전 11:30(A-1,2)
- 주제: "한의학 중심의 겨울철 체온관리 및 면역력 증진법"
- 강사: 유제운 요섭(한의원 원장)

13 33일 기도 봉헌 및 봉헌식 안내

- 봉헌을 위한 33일간의 기도를 마치고 아래와 같이 봉헌 및 봉헌 갱신식이 있습니다.
- 일시: 12월 9일(토) 오후 7:30 미사 후, 본당
- 준비: 고해 성사, 성모님께 바치는 글, 봉헌예물
초/장미/스카폴라는 본당 입구에서 미리 구입(\$10)
- 문의: 김지윤 그라시아 (571)243-5054
- 주최: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14 공동체 기도회

- 일시: 12월 9일(토) 오후 8시
- 매월 둘째 주 토요일은 공동체 기도회의 날입니다. 소속 공동체에 참석하여 신앙과 친교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15 단체장 회의

- 일시: 12월 10일(일) 오전 11:30(B-1,2)

16 꼬미시움 월례회의

- 일시: 12월 10일(일) 오후 1시(B-3,4)

17 복사단 모임

- 일시: 12월 10일(일) 오후 12:40(B-1,2)

18 바오로회 총회

- 일시: 12월 10일(일) 오후 6시(친교실)

19 CYO Winter Retreat (9학년-12학년)

- 일시: 12월 15일(금) - 12월 17일(일)
- 장소: Camp Highroad
- 등록: 교실 또는 사무실(1인당 \$40)
- 문의: 이희준 아우스딩 (703)627-0799

20 2018년도 매일미사 정기구독 신청

- 성물부에서 1년분을 신청받습니다.

21 청국장 가루 주문

- 성모회에서 청국장 가루를 주문받고 있습니다.
- 문의: 장 에디타 (703)973-7159

22 셔틀 버스 안내

- 12월 3일부터 Northrop Grumman 주차장에서 성당까지 오는 운행 시간에 10시와 10시 10분이 추가됩니다.

* 성탄 판공성사표 발송 *

성탄 판공성사표와 2018년도 고무금 약정서를 각 가정으로 발송했습니다. 받지 못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오셔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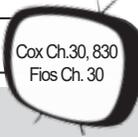
! 신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당 입구 Rippling Pond Dr에 들어오실 때 사고 위험이 높으니 천천히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동네 주민들의 불평과 불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 마당 잔디에 휴지, 캔 등 쓰레기를 버리는 것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필사 5년 계획

-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진행되는 성경 (구약과 신약) 필사에 신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성숙한 신앙인"을 지향하며 기획된 이번 필사를 통해 기쁨과 은총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 12월: 마무리

KACM TV 하이라이트



- 12월 7일(목) 오후 5:00-6:00
- 12월 8일(금) 오후 8:00-9:00
- 12월 10일(일) 오전 6:00-7:00

• 황창연 신부와 함께 하는 성경 여행 : 이슬람의 여성관과 예수의 여성해방 선포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17년 11월 26일 (연중 제34주일)

주일헌금	\$ 7,694.10
교무금	\$ 16,020.00
교무금(크레딧카드)	\$ 3,200.00
특별헌금	\$ 500.00
2차 헌금	\$ 0.00
합계	\$ 27,414.10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기도해주세요

♥ 병중에 계신분

고상균(스테파노), 김경화, 은구희(발바라), Thomas Byrne, 정맹규(데레사), 김영식(요셉), 박상연(라파엘), 정중희(발바라), 김만복(아네스), Dan Cho, 전원후(마리아), 김태명(시몬), 박제중(요셉), 송영호(요한), 감공구(베네딕), 김영자(세레나), 김영식(베드로), 양소차(루시아), 박용재(토마스), 김동분(아가타), 오인균(바오로), 안순영, 이숙(소화 데레사), 백유미(세실리아), 박광원(이나시오), 안순경(모니카), 이수선, 김화순(세실리아), Lauren Maguire, 전선희(데레사), 김광자(세실리아), 이주원(카타리나), 최창일(토마스) 최재근(시몬), 권 미카엘

♥ 군복무자

강로린(루피나), 김도윤(유지니오), 김동진(마태오), 신동우(미카엘), 안성호(요한), 구본인(론지노), 이술(루시아), 이재운(안토니오 파도바), 임현석(아비도), 손범기(펠릭스), 윤벽참(프란치스코), 주기환(필립), 최홍집(엔토니), 심용천(요한), 장동길(피터), 전성호(세례자 요한), 권범수(요한), 임철민(요셉), 최용성(프란치스코), 고미셀(미카엘라), 예스터 정(세레나), 신재훈(대건안드레아), 정수자(요안나), 김승겸(안드레아) 김성우(비오), 박준서(Justin), 박대연(엘리아스), 조종연(모세)
※ 기도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십시오.

RE/MAX Gateway 부동산 www.Rachael.Kim.com 레이첼 김(아네스) 703-652-5790 Cell. 703-774-8945	정재민 치과 센터빌스퀘어(Centreville Square) 정재민(미카엘) DMD, PC 703-825-1191	Pohanka Acura New / Used Cars Yong Kim (미카엘) 847-867-1730 Cell. 571-445-0788	허진 변호사 attorneyhuh24.com 민사, 형사, 소송재판 전문 허진(세바스찬) 703-288-1515	엘리사벳 백화점 화장품, 건강식품, 뉴스킨, 신발 마루 깔아드림(무료견적) 배석범(알베르도) 703-508-7743
마이키즈 소아/청소년과 mykidspediatricians.com 정소연(크리스티나) 703-865-5437	영스 헬스케어 간병사, 간호사, 물리치료 서비스 김경해 (아네스) 703-647-0292	김돈현 가정의학전문의 Fairfax Family Medicine Center Michael D. Kim, MD 703-591-4100	소아전문치과 Pediatric Dental Care Dr. John Han (한장협) Fairfax 703-383-3434 Springfield 703-992-7100	문스 자동차 정비 VA 인스펙션 오일체인지, 각종 자동차정비 이병일(다니엘) 703-266-1983
안 아픈 세상(양방/한방) 교통사고보험 인정 병원 척추신경과, 치료맞사지과 한병나라 이현찬 한의원 703-658-5100	시티 종합 보험 자동차, 주택, 비즈니스, 생명 김수현(엘리사벳) 703-352-1073	Lee's Heating & Air 히팅 & 에어컨 이일우(베드로) 703-675-8009	베스트 사인 간판 / 네온 / 박스 / 현수막 전광판 / 배너 / 메뉴판 703-887-1515	보험/은퇴연금 이경태 요셉 생명보험, 은퇴연금 학자금, 장기 간호 보험 갖고 있는 플랜 점검 가능 703-785-4494
시원 냉난방 에어컨, 히팅, 플러밍 김연철(윌리엄) 703-362-7770	민기호 내과 John Min M.D. 703-462-8711	Euromotor Cars Mercedes-Benz 유스티노 한 703-855-8710	McLean Psychiatric Services 정신과 치료와 상담 Richard Kim, M.D. 703-336-2406	재노 오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재노 오(로사) 703-772-7275
한미 소독 가정집, 상점 (STORE) 하홍엽(요한) 703-451-3322	와니 건축 In & Out 핸디맨 Service 부엌, 화장실, 텍 권태완(빈센트) 571-331-6811	척추사랑 교통사고/척추신경/손, 발 통증 병원 Dr. 이형훈(마르코) 센터빌,철펠리 703-429-4622 락빌 MD 301-231-7588	메디케어 홍석철 마태오 703-969-8956 박인경 소피아 703-969-8954	스킨케어 소유 스킨케어, 바디, 네일 반 영구 눈썹, 속눈썹 연장 이은영(요셉파나) 703-992-7930
하얀나무치과 www.whitetreedental.com 박경욱(크리스) D.D.S. 703-726-8804	그레이스 홈 케어 노인/중증 환자/산모 케어/ 물리치료 전문 간호 석, 박사 운영중 대표 김아네스, RN 703-865-7370	영스 히팅 에어컨, 히팅 703-728-3160	CORE 물리치료 통증, 재활치료 전문 (메디케어) 김우기(안드레아), DPT 703-865-6455	골프 레슨 성인레슨 및 윌포인트 가능 초보, 학생, 여성 퍼터 환영 레지나 678-800-3451
정수정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정수정(안나) 703-855-8575	한중희 토마스 공인 회계사	영스 노인 복지센터 오전/오후반, 차량운행, 2식사 및 간식제공, 질 높은 다양한 클래스, 주정부 보조 및 저렴한 개인 비용 703-988-2044	민 자동차 정비 703-869-9691	이용희 변호사 상법, 교통사고, 상속/유언, 가정법, 재판 Gregory Y. Lee(그레고리오) 703-303-2211
시몽사진 Professional Photography visit: simonleestudio.com 50% off Grand opening 703-338-4665(이창재)	SEM Education Science, English, Math SAT, AP, Subject Test 703-965-8530(Selina)	SBA 대출/상업 대출 Bank of Hope Jessie kim 571-488-5003	Kim's Auto Service 자동차 정비 703-425-4600	피아노 레슨 아동 - 성인반 원하는 장르 가능 703-505-8559
윤 조셉 변호사 www.yoonfirm.com 교통법, DUI/DWI, 형법, 개인상해 재판전문 변호사 703-260-6060	ASSA 종합보험 메디케어 신청과 다른 플랜 소개, 세미나로 자세한 설명드립니다. 문의: 최 클라라 703-649-2110	공인회계사(CPA) 개인세금, 비즈니스 회계, 컨설팅 앤디 차(대건 안드레아) 703-678-8848	Kim Chiropractic & Rehab 교통사고/통증/디스크/재활치료 Dr. 김재중(요한) 703-815-2300	뉴잉톤 오토바디 자동차 바디, 정비, 페인트 김명곤(바오로) 703-455-0008 Cell. 571-243-5037

성사 · 교리 · 하상학교 안내

성사안내
 · 고해성사: 미사시작 30분전
 · 병자영성체: 매주 첫 금요일
 · 유아세례: 짝수 달 넷째 주일 (주보공지)
 · 혼인성사: 6개월전 신청 (교육 필수)
 · 병자성사: 위급하기전 연락 요망

예비자 교리(교리 기간 6개월)
 · 주일: 11:40-12:40 (하상관)
 예비자나 전입자 또는 방문자는
 성당 입구 봉사센터 또는
 사무실에서 등록을 받습니다.

하상한국학교 (Hasang Korean School)
 · 정규학기: 일반 Public School 과 동일, 매주 토요일
 · 여름학기: 매년 6월에 개강
하상성인학교 (Hasang Adult School)
 · 불학기, 가을학기 운영 / 매주 화, 금
하상 한국학교 / 성인학교 연락처
 · (703) 968-3070

미사 시간 (MASS SCHEDULE)

주일미사	· 08:00 AM · 10:00 AM · 11:40 AM (학생 / 영어미사) · 03:00 PM (우드브릿지 한국어미사) St. Elizabeth Ann Seton Catholic Church · 05:00 PM (청년미사)
토요일 저녁	07:30 PM
주일학교 수업	주일 10:00 AM
월 & 목	06:00 AM 화 & 금 07:30 PM
수요일	11:00 AM 토요일 07:00 AM



천주교 성 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Tel (703)968-3010 | Fax (703)968-3013
 Home Page : www.stpaulchung.org
 E-Mail : sthasang@gmail.com

PARISH STAFF 주임신부 백인현 (안드레아) | 보좌신부 방명준 (라우렌시오) | 사도회장 이용현 (요셉)